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4

나의 살던 북정마을

— 성북구 토박이 이승규의 삶과 도전 —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나의 살던 북정마을

- 성북구 토박이 이승규의 삶과 도전 -

나의 살던 북정마을

- 성북구 토박이 이승규의 삶과 도전 -

박미현·이소희·정봉운·김지훈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4

나의 살던 북정마을

- 성북구 토박이 이승규의 삶과 도전 -

구술자 이승규

지은이 박미현·이소희·정봉운·김지훈

협 력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엮은이 김지훈

디자인 노세진

펴낸이 조태권

펴낸곳 성북문화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전화 02-765-1611

팩스 02-765-1619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성북마을아카이브 archive.sb.go.kr

(C) 이승규 · 성북문화원, 2021

ISBN 979-11-954544-6-4 03910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초판 1쇄

이 책은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 주민기록단 교육의 수강생 실습 결과물을 토대로
성북문화원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민기록단 교육

기획 강성봉

교육 오제연

운영 김지훈·장지희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성북문화원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하나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로 주민기록단 교육의 결과물인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입니다. 우리 문화원은 작년부터 구술생애사 교육과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성북의 역사 만들기를 시도했습니다. 2020년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1~3권의 발간이 그 노력과 실천의 산물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시작된 주민기록단 구술사 교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 우리 문화원은 2018년부터 성북구청과 협력하여 성북구 마을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성북구의 공동체 기록을 모으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주민기록단 양성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문화원에서 축적한 다년간의 연구 성과와 마을아카이브팀의 기록물 수집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후 성북구 지역민들의 삶이 생생하게 담긴 주민기록단의 활동과 스스로 역사 만들기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원은 차별화된 주민기록단 교육 커리큘럼과 훌륭한 강사진들의 노력으로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제는 기록뿐만 아니라 과거의 재현으로서 기억, 기억의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포착할 때입니다. 성북구의 기억의 장소는 지금도 만
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으로 부르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이
미 역사이고, 기억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역사를 추구하는 것입니
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는 성북동 북정마을과 석관동 한천마을의
기억과 역사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구술자의 어린 시절, 마을에서
겪었던 일들, 현재 삶의 모습으로 크게 나뉘어 있습니다. 대체로 시
간 순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아무 곳이나 펴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또한 북정마을과 한천마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적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매주 과제와 교육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주민기록단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자, 당신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
주신 구술자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양한 구술사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단단하게 다져주신 성균관대
학교 사학과 오제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고단한 사정 속
에서도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써 주민기록단 교육에 큰 기여
를 해온 마을아카이브팀의 노고를 기억해 둡니다.

성북문화원은 늘 그렇듯이, 현장을 우선으로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주민기록단과 함께 공부하며 채워가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
야기를 통해서 지역의 역동성과 풍부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성북문화원 원장 조 태 권

축사

주민들이 함께 기록한 성북의 역사

인류 역사에 많은 격변이 있었지만, 2021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야말로 대격변의 한복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워드 코로나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자유롭게 만나고 이야기 나누던 일상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기록단 활동의 핵심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구술면담’임에도 상반기 6주간, 그리고 하반기 8주간 진행된 주민기록단 교육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구술자들과는 대면 면담이 가능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했기에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솔직히 저는 주민기록단의 교육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과연 2021년의 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주민기록단 단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색하고 불편한 온라인 교육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 교육에서 배운 구술사의 이론과 방법을 활용해 조를 짜서 구술자와 직접 대면하고 면담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주민기록단 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했을지언정,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단원들의 구술사 역량은 교육과 실습이 진행될 수록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번에 간행된 두 권의 책은 2021년 하반기 주민기록단 활동의 최종성과입니다. 하반기에는 처음부터 구술생애사 책자 간행을 목표로 구술사 이론 및 방법 교육, 구술자 섭외와 대면 면담, 그리고 녹취록 작성과 원고 작성 등의 활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 주민기록단 활동 과정에서 구술을 해 주신 분은 권춘자 님과 이승규 님이십니다. 두 분 다 성북구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데, 권춘자 님은 석관동에서 오랫동안 연탄가게를 운영하셨고, 이승규 님은 북정마을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권춘자, 이승규 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성북구의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그 속에서 살아갔던 성북구 주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책은 주민들이 직접 만나 묻고 답하며 함께 써 내려간 성북의 역사이며, 이야말로 구술사가 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이 간행되기까지 애써주신 두 분의 구술자님과 모든 주민기록단 단원들, 그리고 성북문화원의 김지훈, 장지희 선생님과 성균관대 사학과 4단계 BK21 사업단의 곽규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지만, 성북구 주민기록단의 활동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오 제 연

머 리 말

구술 자료의 사실적 신빙성을 검사한다면, 구술사에는 틀린 진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술자에게 틀린 진실이 계속 진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은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설명과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구술사의 부분성·미완성을 인정하고, 구술사의 특징을 살려 기존의 역사연구에서 줄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번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는 그 네 번째 주인공으로 이승규님의 삶의 진실을 담아보았습니다. 인터뷰는 여러 번 이루어졌으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녹취하였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지면관계상 모든 이야기를 담지 못했습니다.

구성은 ‘1부 어린 시절’, ‘2부 북정마을’, ‘3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4부 인생후반기’로 주제에 따라 나누었고, 시간 순서로 이승규님의 생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부는 구술자가 태어나고 자란 북정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본인이 살던 초가집에 대한 기억, 마을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의 놀이, 그 시절 과자가게의 추억이 북정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던 성북천에서 어머님과 추억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2부는 북정마을 경관의 변화와 지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정마을의 토박이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벼락바

위, 연난산, 치안주택 등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와 산신제·지신밟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해 한용운 심우장의 위상과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3부는 대학 입학에서부터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 입학한 대학이야기부터 건대사건, 진도 씻김굿 조사까지 당시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증언들입니다. 또한 IMF로 명예 퇴직한 이야기는 당시에 아픔을 겪었던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4부는 명예퇴직 이후 시작한 출판사업을 그만두고 요식업을 하게 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배움의 활동과 중장년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책은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공기를 가진 북정마을의 이야기이자, 북정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승규 님의 자서전입니다.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구술자와 오랜 시간 구술내용에 대한 확인과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대한 기록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김 지 훈

차례

발간사	6
축사	8
머리말	10
약력	15

1부 어린 시절

북정마을에서 태어나다	19
판잣집과 초가집	20
가족 이야기	24
어린 시절 놀이	26
성북천에 대한 기억	27
그 시절의 가게들	28
돌아서면 배고파	31
고모부는 국가유공자	32

2부 북정마을

벼락바위와 연난산	35
피리 부는 할아버지	38
북정마을과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	39
산신제와 지신밧기	40
북정마을의 생활시설	41
성북천의 변화	44
북정마을 한양도성 재개발	45
성북동 치안주택	45
동선동에 정착	46

3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두 번 입학한 대학교	51
첫 미팅	53
건대사건에 대해서	54
진도(珍島) 조사의 기억	55
영일종합공사에서 첫 직장생활	58
신연희종합건축사사무소	60
IMF와 두산건설 명예퇴직	61
매직후프 출판	63
미니오락기로 돈을 벌다	65
사장님들과 무슨 얘기를 할까	68

4부 인생 후반기

치킨가게 운영	73
닭발가게 시작	74
친구들의 도움	76
귀농을 생각하다: 버섯종균기능사	76
새로운 배움과 활동: 50플러스	78
50플러스 세대들에게	81
성북에 대한 생각들	81

에필로그

86



약력

- 1962년 성북동 북정마을에서 출생
- 1975년 성북초등학교 27회 졸업
- 1978년 삼선중학교 16회 졸업
- 1981년 경동고등학교 37회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계열 입학
- 1984년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입학
- 1988년 건국대학교 47회 졸업 / 영일종합공사 입사
- 1989년 신연희 건축사 사무소 입사
- 1990년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입사
- 1993년 배우자 김지해와 결혼
- 1994년 두산건설 입사 / 딸 태어남
- 1997년 아들 태어남
- 1999년 헬스포 운영(자영업)
- 2009년 가게 운영 시작
- 현 재 성신여대 정문 앞 ‘오돌이와 불닭발’ 운영

면담정보

1차

면담자: 김지훈

면담장소: 구술자 가게(동선동2가 135-12 지층)

면담일자: 2021년 9월 10일

2차

면담자: 박미현, 이소희, 정봉운, 김지훈

면담장소: 성북문화원 1층 강당

면담일자: 2021년 9월 29일

3차

면담자: 김지훈

면담장소: 구술자 가게(동선동2가 135-12 지층)

면담일자: 2021년 11월 15일

※ 공식 면담 이외에 수차례 비공식 인터뷰 진행

01

어린 시절



북정마을에서 태어나다

●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돌사진

저는 북정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본적은 종로구 예지동 123번지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8번째로 낳으시고 예지동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북정마을로 이사 오신 거죠. 종로구 예지동 지금 시계골목이요. 광장시장 건너편이 예지동이에요. 저는 1962년에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집에서 태어났어요.

제 주민등록상에는 가난의 흔적이 있어요. 그 당시는 절대적으로 가난했었어요. 제가 음력 9월에 태어났는데 당시에 어머니께서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셔서 해를 넘겨서 하려고 하니, 해를 넘기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월 31일 날짜로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날짜하고 실제 나이하고 다른 거죠. 원래는 호랑이띠인데 토끼띠로 되어 있어요.

판잣집과 초가집

● 어릴 때 살던 집은 어떤 형태였나요?

저희 집은 초가집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살다가 막냇동생이 태어났을 때까지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저와 막내는 10살 차이가 나요. 현재 있는 집은 72년도에 지었어요. 저는 열 살 때까지 초가집에 살았어요. 그 동네가 옛날에는 초가집들이 있었고 판잣집과 블록집도 있었어요. 저희 집을 지을 때는 초가집이 저희 집밖에 없고, 근처에 초가집은 한 집도 없었어요. 주로 판잣집과 블록집이 많았죠. 벽돌이 아니고 블록이라고 해서 가운데 구멍 뚫린 게 있어요. 그걸 쌓아가지고 집을 짓는 거죠.

저희 집은 성북구 성북동 217-114번지에 있었어요. 초가집이다 보니, 옛날에는 안방 벽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어요. 어렸을 때 동네친

구들이 놀러오면 벽이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무서워서 우리 집으로 잘 안 들어왔어요. 저 집 무너진다고요. 근데 저희는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살았던 거죠. 집에는 조그맣게 마당도 있었어요. 초가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네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한양도성 위(종로구) 아래(성북구)로 판잣집이 길게 쪽 이어져 있었어요. 중간 중간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넘어 다니고 그랬어요.



북정마을 구술자 집, 지금은 지붕 색깔이 바뀌었다.

● 판잣집(하꼬방)의 구조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한양도성 위에 지금은 석루가 있어서, 포 쏘는 구멍¹이 많이 있잖

1 여장(女牆): 성벽 위에 설치하는 낮은 담장으로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여장(女牆)은 여담 또는 여첩(女堞), 타(垛), 성가퀴 등으로 다양하게 부른다.(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07)

아요. 그래서 무너져 있는데도 있는데, 옛날에는 석루가 다 없었던 상태였어요.

성벽의 형태는 있었는데 밑 부분만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무너져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완전한 상태로 있는데 위에 총 쏘는 부분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곽 주변에 판잣집들이 있었죠. 하꼬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타막이라 그러거든요. 판자에 기름종이를 붙여 지붕 만들었어요. 성벽 위에 능선 따라서 짝 있었어요. 그리고 성벽 위는 종로구인데 그쪽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집이 지은 지 벌써 50년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지어진 주변의 집들은 50년 넘기는 집들인 거죠. 그래서 벽돌로 보강을 한 집도 있고 새로 지은 집도 있었죠.

우리 집은 위쪽인데, 지금은 도로가 있지만 당시에는 도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시멘트 블록을 애들이 나르고 그랬어요. 애들이 방과 후에 오면서 하나씩 들고 오면 얼마씩 줬잖아요. 돈을 주면 애들은 군것질 할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우리 초가집을 다 부시고, 필요한 거는 밭에다가 놓고, 나머지 다 부셔버리고, 새로 싹 지은 거죠. 밑에 바위가 있어서 지하를 제대로 는 못 파서 그냥 바위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바위 옆에 다가 반지하방 같이 하나 만들었죠. 지금도 있어요.

집은 장가갈 때까지, 서른두 살까지 살았죠. 결혼해서 보문동으로 처음 분가하게 되었어요.

● 당시 초가집에서는 누구랑 사셨어요?

부모님과 오형제요. 그래서 조금 비좁게 살았죠. 집에 방이 세 칸인데 방 한 칸을 세 켜었어요. 집이 18평인데 마당이 작게 있었지만 집이 좁았어요. 부엌 위 다락에서도 살고 지하방에서도 살고 그랬죠.

그 동네 집짓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차가 집 앞에 까지 못 가니 일단 집 지을 자재를 사람들이 다 일일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밑에 연탄가게가 있었어요. 연탄가게에다 자재(벽돌)를 내려 주면 인력으로 들고 올라 와요.



부모님과 창경궁 나들이

가족 이야기

●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아버지는 1937년에 할머니가 8번 만에 얻은 귀한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창경국민학교를 다니셨고 카투스(KATUSA)로 강원도 양구군에서 군 생활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전라북도 출신이신데, 안암동에 거주하시다가 아는 분 중매로 아버지와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성북 전화국에 다니셨어요. 직접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화 가설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장비도 좀 미흡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직업병이 있었어요. 팔꿈치에 호두 반쪽 크기의 혹이 붙어 있었어요. 옆집 홍씨 아저씨도 성북 전화국을 같이 다니셨는데 그분도 팔꿈치에 똑같은 혹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거 안 아프세요?” 그랬더니 “안 아프다.” 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옆집 홍씨 아저씨가 오셨는데 아저씨도 혹이 붙어 있어서 “아저씨 왜 붙어있어요?” 그랬더니 “야 묻지 마, 인마 그런 게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전봇대 올라갈 때 사다리 사용하잖아요. 옛날에는 대나무 사다리였어요. 전봇대에 올라가는 사람마다 그 큰 사다리를 왼손으로 받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에 굳은살처럼 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아래 친구 아버지도 전화국에 다니셨어요. 우연인지, 어떻게 이렇게 같이 모여 살았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전화국에 다니시지는 않으셨대요. 나이가 드니

까 ‘이 동네는 어땠었지?’ 하고 제가 요즘 와서 많이 궁금해지고 있어요. 요즘 마을 해설자 교육을 다니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성북1치안센터 앞에 있는 느티나무가 이승만 대통령이 심은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궁금하니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 느티나무 이승만대통령이 심었다던데,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하니 알고 계셨다고, 이승만대통령이 성북동에 왔다가 심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아스팔트 포장 공사장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성북동에 왔다가 다음에 창경궁에서 삼선교 넘어오는 길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워낙 깔끔하시고 조금 까다로운 면도 있으셔서, 어머니께서 싸주신 도시락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집 밥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첫째였고 제 밑으로 여동생, 여동생, 남동생, 막내 남동생 그렇게 다섯 형제예요. 나이 차이가 제 밑에 세 살, 그 밑에는 세 살, 그 밑에는 두 살, 또 그 밑에는 두 살 이런 식으로 막냇동생하고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동생들과 싸울 일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동네 친구와 함께

어린 시절 놀이

● 어릴 때 뭐하고 노셨어요?

주로 ‘숨바꼭질’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큰 도로가 없었고 골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숨기에도 좋았어요. 다음으로는 ‘말까기’, ‘깡통놀이(쥐불놀이)’, ‘썰매, 대나무스키타기’, ‘방구방구 다방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했죠.

국민학교 5~6학년정도 됐을 나이였는데, 새총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성곽(한양도성) 복원 공사로 성에 쓸 돌들을 가져다 놓은 곳에서 새총 싸움을 했는데 돌맹이를 사람한테 쏜 거예요. 동네 동생이 고개를 숙여 숨어 있다가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제가 새총을 쏘는데 어떤 아이 얼굴 눈가에 딱 맞은 거예요. 얼마나 식겁했는지 가서 보니까 다행히 감은 눈 위에 돌맹이가 맞아서 손으로 털었는데 흙이 떨어지더라고요. 털고 나서 “괜찮니?” 물었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나랑 세 살 터울 동생이었는데, 큰일 날 뻔 했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순간은 아찔했어요.

군부대 앞에 터널 뚫리기 전에는 넓은 공터에서 놀다가 삼청 공원에 버찌 따러 가기도 하고 성균관대학교 안에 옥류정 앞 넓은 곳에서 축구하고 땀나면 옥류정에서 샤워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았었어요.

‘성마당’이라는 넓은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명륜동에서 북정마을로 넘어올 때 성벽 밑으로 통행할 수 있는 개구멍 같은 게 있는데,

사람 정도만 통행 할 수 있는 구멍 뚫린 데가 있어요. 거기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놀고 그랬었죠. 그때는 축구할 곳이 없으니까 저희는 틈만 나면 거기 가서 축구했어요. 또 축구 많이 했던 곳은 북정마을 노인정 그 앞이 넓은 공터였어요. 거기서도 놀았고, 그 후에는 저 위에 올라가면 ‘절담’ 이라 부르는 곳에서도 놀았어요. 요즘 가서 보니 산 속에 풀이 자라있는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그런 놀이들을 할 수가 있었나 싶어요.



초가집 마당에서



초등학교 6학년 소풍, 창경궁(1974년)

성북천에 대한 기억

제가 성북초등학교를 다닐 땐, 지금의 ‘성북동돼지갈비’ 와 ‘쌍다리 식당’ 앞은 개천 복구가 되기 전에는 물이 많이 흘렀었어요. 거기 물이 있었고 ‘쌍다리’ 라고 해서 다리가 2개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어느 여름 비오는 날 그 길로 물이 엄청나게 내

려왔어요. 그 쪽으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막 쫓아오셨어요. 거기 위험하니 안 된다고 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² 성 있잖아요. 그쪽으로 학교 등교한 일이 있었던 생각이 나네요. 쌍다리는 정확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는 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철판 같은 그런 다리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70년도 후반기 쯤 공사하면서 콘크리트 다리로 바꾸면서 다시 도로 포장하고 복개했어요.

그 시절의 가게들

● 어릴 때 필요한 물건이나 과자는 어디서 사셨어요?

북정마을에 가게가 몇 개 있었죠. “양씨네 가게”, “병대네 가게” 가게를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집 밑에는 병대네 가게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장사를 했었는데 아들 이름이 병대였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병대가 네 애 이름이냐?” 그러셔서 안씨네 가게로 부르기도 했어요. 병대네 가게 밑으로 ‘양씨네 가게’, ‘박씨네 가게(쌀집)’가 있었고, 양씨네 가게 밑에는 연탄가게도 있었죠. 길 따라서 그렇게 있었어요. 양씨 가게 옆 골목에 박약국도 있었어요.

2 서울과학교등학교 후문 쪽 한양도성 초입 와룡공원길.

● 구멍가게(병대네 가게, 양씨네 가게)에서는 무엇을 팔았던 거예요?

구멍가게는 지금의 작은 슈퍼예요. 땅속에 묻어놓은 항아리에서 퍼주는 막걸리도 팔았었는데, 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막걸리 심부름으로 사오기도 했어요. 집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막걸리 없으면, 내려가서 다른 가게 가고, 거기에도 없으면 아랫동네로 내려가야 되고, 또 “없어” 그러면 더 밑에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가서 사왔던 거죠.

막걸리는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어놓고 조그만 손잡이의 빨간 바가지로 퍼주셨어요. 옛날에는 막걸리를 말통³에 담아 자전거로 싣고 와서 구멍가게에 주고가면 구멍가게에서는 말통을 보관하기가 어려우니 가게 땅 밑에다 독(항아리)을 하나 묻어놓고, 거기다 막걸리를 부어서 바가지로 폈어요.

● 가게와 관련된 기억나는 일이 있으세요?

병대네 가게에 가면, 주인인 할머니가 약간 복스럽게 생기셨는데, 저를 볼 때마다 “아유~ 왔냐?” 그랬어요. 당시에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도 잘했던 거 같아요. 또 할머니가 “너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냐? 너희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냐?” 면서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친할머니를 못 뵈었거든요. 근데 가게 할머니는

3 곡식, 액체, 가루 따위를 한 말 분량으로 담을 수 있는 통. 약18리터 내지 20리터에 해당하는 분량을 담을 수 있다.(네이버 국어사전)

우리 할머니가 엄청 깔끔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성향을 저희 아버님이 물려 받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처럼 깔끔하진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어느 정도 깔끔했냐면, 저랑 같이 목욕탕을 가면 엄청 아프게 때를 밀어요. 목욕탕에 가서 씻은 다음에 집에 가잖아요? 보통 목욕탕에 갔다 집에 도착하면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손발을 씻고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항상 마루를 많이 닦으시고 해서 마룻바닥이 빛날 정도였어요.

용돈 생기면 병대네 가게로 달려가서 맛있는 과자 사먹고 그랬었죠. 옛날에는 지금의 슈퍼처럼 다양한 물건들이 없었어요. 필요한 것만 몇 개 갖다 놓고, 예를 들어 껌, 사탕, 과자 몇 개 갖다 놓고 팔았던 거죠. 그렇게 동네에 진짜 방 한 칸 정도 되는 크기에 진열해 두고 팔았어요. 또 파는 종류도 좀 달랐어요. 양씨네 가게와 박씨네 가게는 쌀을 팔았는데, 병대네 가게는 쌀은 안 팔았었어요.



성북초등학교 27회 졸업식(1975년)



보수한 한양도성 앞에서(1978년)

돌아서면 배고파

● 식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밥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는 80kg 쌀 한가마니를 사거나 쌀집에서 되박으로 봉지쌀을 원하는 만큼 팔아서 밥을 해 먹었으며, 해마다 연탄 들여놓고, 쌀 들여놓고. 그게 연례행사잖아요. 일단 밥그릇도 지금 쓰는 것보다 컸고요. 작은 공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약간 큰 대접에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에 제가 중학교 때는 하루 다섯 끼는 먹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키가 1년에 10cm, 다음해 9cm해서 2년 동안 19cm나 컸으니까요. 그 땐 돌아서면 배고프고, 많이 먹어도 배고팠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먹고, 우리는 5형제라 도시락도 많이 싸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정말 고생이셨죠.

● 무슨 반찬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제일 좋아했던 음식은 어머니가 해주신 국이나 찌개예요. 아버지께선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 식사를 하셔서 어머니께서 매 식사 때마다 해주셨었어요. 그냥 감자, 두부, 어묵 등 있는 재료들 넣고 한 냄비에 찌개를 끓이면, 금방 없어져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먹어요. 다섯 형제가 붙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아니었죠.

고모부는 국가유공자

● 친척 중에 기억나시는 분은 있으세요?

옆 동네에 저희 큰집이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형제가 삼형제인데, 할아버지가 제일 막내고 두 번째 할아버지가 성터 근방에 사셨어요.

큰집 형제가 더 많았어요. 거기도 육남매였는데, 딸만 다섯에 아들 한 명이에요. 아무튼 명절은 항상 큰집에 가서 먼저 차례를 올리고 집으로 와서 차례를 지냈어요. 왜냐하면 큰집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큰집 고모부는 국가유공자(상이군인)이었어요. 큰집 고모부가 영등포 골목에서 알아주는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동네에서 나쁜 사람들을 작대기로 막 혼내주셨대요. 옛날엔 사회보장 제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가서 땡강⁴피우고 돈 달라고 하기도 하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4 일본어[tankman(癲癇)], 생떼를 속되게 이르는 말.

12

북정마을



벼락바위와 연난산

● 과거 북정마을의 모습이 어땠나요?

어머니가 북정마을에 시집 왔을 때는 뒷산이 무서워서 못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동네 뒤에 큰 소나무들이 많았고, 호랑이 나올까 봐. 그럴 만도 한 게 청와대 뒷산은 호랑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거져 있어요. 사람도 못 들어갈 뿐더러 완전 밀림이고, 특히 김신조 사건⁵ 나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군부대에서 한양도성 위쪽으로 쪽 가면 있는 ‘말바위’ 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마을사람들은 ‘벼락바위’라고 그

5 1·21사태: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 경찰국 소속인 124군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사건.(한국민족문화대백과)

했는데, 그 주변에는 능금이 있어서 능금도 따러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북정마을은 경로당이 있는 ‘연난산’ 주변이에요.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는 연난산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큰 바위도 있고, 축구와 놀이들을 자주 했어요. 공 떨어지면 주우러 밀으로 가고. 연난산 아래쪽에는 개천이고 반대쪽은 집이 있었어요. 집 쪽으로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지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넓은 마당이 있어서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북정마을이라고 하면 그런 곳도 소개를 해야 하죠. 몇 년 전에 북정마을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유명해졌을 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진기로 빨래 널어놓은 것도 다 찍는다.” 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북정마을에 살고 계시고 집 근처에서 텃밭도 가꾸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밭농사 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연난산을 배경으로, 동생과 함께

● 어머님께서 시집 오셨을 때는 북정마을 뒷산이 우거졌다고 하셨는데, 지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니께서는 시집오신 뒤 60여 년간을 북정마을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옛날 지형도 잘 알고 계세요. 북정마을 아래쪽으로 한 쪽이 개천이잖아요. 그리고 성북동 주민센터 있는 건물위치가 원래 도로예요. 그리고 건너편 지금 도로가 전부 다 복개한 거예요. 여기 성북천 분수대(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아래쪽은 열려 있잖아요. 반대로 길 따라 하천 따라 쪽 가면 산속까지 가는 거예요. 그 끝에 ‘삼청각’이 있어요. 삼청각 위쪽 성북 발원지에서부터 물이 흘러 하천으로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성북초등학교 부근에 ‘마전터’ 라고 거기서 마(麻)를 삶아서 염색하고 말렸대요. 저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성북동 330번지 부근은 부촌이 형성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곳이 택지 개발해 놓은 공터였었던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 잠자리 잡고, 밑으



로 내려와 개울에서 수영하면서 놀고, 위쪽으로 올라가 가재 잡고 옛날에는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개울 물도 그때는 깨끗하고 추울 정도로 차가운 물이었어요. 현재 ‘우정의 공원’ 밑으로는 도로로 복개되어 물줄기를 확인 할 수는 없어요.

◀ 부모님, 이모, 4형제와 함께.
막내는 태어나기 전이다(한양도성)

피리 부는 할아버지

● 북정마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세요?

지금은 북정마을이 잘 알려졌지만, 어릴 때는 마을 이름이 뭔지 몰랐어요. 나이가 드니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면 어르신들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보다 적었던 거예요. 제가 10대일 때 우리 동네 어르신이라고 하던 분들이 거의 50대 정도였던 거예요. 제가 60살이 되다보니깐 “어? 그 당시 어른들보다 지금의 내가 나이가 많은 거네.” 싶더라고요.

북정마을에서는 산신제도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농악도 있었고. 특별히 기억에 나는 것은 피리 부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피리 부는 할아버지가 침을 뱉어요. 어렸을 때 축구하고 놀다가 다리를 다쳤었는데, 저녁에 병원 갈 수가 없으니 피리 부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침 맞고 그랬어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나네요. 할아버지 집은 지금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북정마을 지도



서울미래유산, 2015년에 선정되었다.

북정마을과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

● 북정마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주세요.

보문동에 50플러스센터⁶가 생겼는데, 마을 해설사 교육을 갔었어요. “어? 나 같은 북정마을 출신이 북정마을에 대해서 소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북정마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고, 만해 한용운 심우장이 북정마을의 전부인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심우장 가면 끝나고 내려와서 각자 집에 가죠. 사실 제가 살 때는 심우장인 줄도 몰랐어요. 네모반듯한 마당 있는 한옥집 하나 있다 그 정도였어요. 최근에 와서 많이 알려진 거죠.

어렸을 때는 심우장 앞집이 친구 집이었어요. 그 집에 놀러간 적이 있었죠. 당시에 심우장에는 따님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반 살림집이고, 그냥 누군가가 한옥집에 살고 있다는 정도로 생각했었죠. 어렸을 때는 만해 한용운이라는 사람도 누군지도 몰랐고, 그 집이 심우장인지 몰랐을 때였어요.

6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50+세대(만50세-64세, 베이비부머·신중년 등으로 일컫는 중장년층)를 위한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에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

산신제와 지신밧기

옛날에는 무당 옷 비슷한 거 입은 사람들이 산신제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요즘도 지낸대요. 작년에도 했고. 몇 년 전에는 외부사람들 불러서 잔치도 하고, 행사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몇몇 집이 추렴해서 해요. 그리고 옛날에 농악도 했었어요. 그래서 농악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놀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정월 대보름날 즈음 집집마다 다니면서 액운을 쫓아준다고 지신밧기를 하면 그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인사하고 돈도 드리고 했던 거 같아요. 쌀도 드리고 기억이 나요.

농악은 동네 분들이 하셨어요. 북정경로당에서 창호지인지 종이로 된 꽃을 만들어서 고깔모자에 붙여 쓰고 농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주로 경로당에서 했어요. 거기 악기와 물건들이 다 있었고, 옛날에는 동네에 제일 큰 공간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경로당이 오래된 자리죠. 거기가 마을 집합 장소고, 거기가 연난산이라고 해서 바위도 있었고 그 아래로 개천도 흐르고.



북정마을 풍경, 팽과리가 걸려있다.

웃놀이는 옛날부터 하는 것도 봤고.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 막걸리 내기 하면서 즐겁게 하고 계세요.

북정마을의 생활시설

● 과거 북정마을의 생활 기반시설 같은 건 어땠나요?

마을로 차 진입이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마을버스가 북정마을을 한 바퀴 돌지만, 예전에는 밑에서 돌려서 내려갔었어요. 지금은 마을 정상까지 올라가서 버스를 돌리는데, 예전에는 동네 아래에 연탄가게(성북동 빌리지 부근)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차가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을까지 골목골목 걸어 올라왔어요.

어렸을 때는 수도시설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중학교 가기 전까지 수도를 설치하는 게 목표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지계를 안 지다가 중학교 가면 분명히 지계를 지고 물을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 물 사정이 안 좋으니깐. 지계 지면 키가 안 큰다고 그랬어요.

빨래하러 전부 다 명수학교⁷까지 가서 빨래하고 그랬었어요. 물 길고, 사람들이 약수터가고 그랬었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들 어렵게 살았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수도’ 우리 어머니의 목표였기 때문에 수도 연결해달라고 수도 사업소에 엄청 찾아가셨어요. 저 밑에 동네는 물이 나오는데 왜 이 동네는 안 올라 오냐고. 근데 이 마을이 골목골목이라 공사하기도

7 1968년 3개 학급 규모로 설립 인가되어 개교한 사립 특수학교였다. 2015년 8월 31일에 폐교되었다가, 2015년 9월 1일 공립 서울다원학교로 재 개교하였다.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과정이 통합된 형태의 학교이다. 성북구 성북로31길 5-15에 위치한다.

힘들고 해서 안했던 걸 거예요. 당시만 해도 포크레인(굴착기)이 깊게 파고들어 가는 게 없어서 다 사람이 파야하니깐 공사비도 많이 들잖아요. 수도 설치비용보다 받는 돈이 분명히 적었을 거예요. 다행히 초등학교 다닐 때 수도를 났어요.



북정마을 소방도로준공기념비(1983.4.25.)



북정마을 굴다리



심우장에서 북정경로당으로 향하는 골목길이다.

● 등교는 어떻게 하셨나요?

계속 걸어 다녔죠. 북정마을에서 성북초등학교까지 걸어 다녔어요. 삼선중학교 다닐 때도 북정마을에서 걸어 다녔어요. 경동고등학교 다닐 때도 걸어 다녔어요. 나중에 성북초등학교 앞에 90번 버스가 있었어요. 종점이었죠. 근데 85번⁸이 들어오면서 명수학교(서울 다원학교)까지 들어왔어요. 85번이 옛날에 풍양운수라고 해서 한강 다리로 떨어진 버스, 그 회사였어요.⁹



성북국민학교
27회 졸업식(1975년)



삼선중학교
교복을 입고



경동고등학교
37회 졸업식(1980년)

8 신동아 운수(이후 봉천교통→풍양운수)에서 1970년 서울시내버스 개편으로 좌석버스 82번에서 도시형버스 85번으로 전환되었다. 85번 버스는 봉천5동에서 성북동까지 운행하였다. 이후 5011번으로 삼각지로 단축되어 운행하다가 다시 용산역으로 단축되고 2008년 6월 1일에 폐선되었다.

9 풍양운수는 과거에 존재했던 서울시내버스 업체였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67번지에 본사를 두었다. 1978년 7월에 한강대교 버스 추락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여 봉천교통에서 풍양운수로 사명을 변경했다.

성북천의 변화

- 북정마을을 지나던 성북천은 어떠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북정마을을 지나던 성북천은 여름 장마철에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리가 튼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북천은 발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삼청각 옆으로 흘러 익창로를 지나 우정의 공원까지 자연적으로 흐르고, 그 밑으로는 도로로 복개되어 삼선교까지 흘러요. 발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 삼청각 옆에서는 옛날에 가재도 잡고, 우정의 공원 위 개천에서 수영하고 놀고 그랬었어요.

변화라고 하면, 쌍다리 있는 쪽 개천을 다 메워서 도로를 만들다 보니, 그쪽까지 버스가 운행되게 되어서 85번 버스 종점이 생긴 것이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옛날에 쌍다리는 두 개의 다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멍 뽕뽕 뚫려 있는 철다리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시멘트다리로 된 후 복개된 것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이 흘렀던 것 같네요.

아마 성북초등학교 쪽이 지금은 복개하는 바람에 거기가 도로가 됐는데 옛날에는 파출소가 건너편 하천 옆에 있었어요.

성북동 주민센터와 나폴레옹과자점 측 도로는 원래부터 도로로 되어 있었으며 반대편 도로는 하천을 복개한 도로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북정마을 한양도성 재개발

북정마을은 세대수가 많은 동네였어요. 한 집에 자녀수도 3~5명 정도 되는 밀집된 동네예요. 당시 성북초등학교는 한 학급에 60명 정도 되었고, 한 학년에 여자 3반, 남자 3반으로 콩나물시루 같은 학생 숫자에 일조한 동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성북동 집 앞에 옛날에는 골목길이 있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골목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골목길에 살던 사람들이 집이 헐리면서 상계동으로 이사를 많이 갔어요. 발 위와 곳곳에서 살던 사람들도 상계동으로 이사를 많이 갔죠.

그리고 한양도성하고 한양도성 밑에도 바로 붙어서 거기도 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곳도 다 헐어버려서, 그 집들이 싹 다 없어진 거죠.

성북동 치안주택

쌍다리에서 왼쪽으로 03번 마을버스 타고 올라가면 영광교회 정거장이예요. 거기서 내려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가면 치안주택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치안주택은 경찰 출신들이 여기다가 한 30가구 정도의 동네를 형성한 거예요. 정원 또는 마당이 있고 잘 지은 집들이 많아요. 연결도로가 따로 없어 다시 내려와야 돼요.

저희 아버지께서 치안주택이라고 알려주셔서 알게 됐어요. 제가

치안주택 사는 친구한테 “너는 어떻게 치안주택에 살게 되었어? 너희 아버지 경찰 출신이었어?” 라고 물어보니 “너 어떻게 치안주택을 알아?”라고 놀라며 오히려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았던 기억이 남는다.

동선동에 정착

● 동선동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아들이 태어난 97년도까지 보문동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동소문동 1가로 이사했는데 보문동 집보다 집이 넓었어요. 거기서 살다가 2006년에 동선동으로 이사 왔어요. 보문동에서 5년, 동소문동 1가에서 9년, 동선동에서 지금까지 16년 정도 살고 있어요.

보문동에서 첫 살림방을 차렸는데 거긴 방이 하나였어요. 딸이 94년에 태어나고 3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식구가 많고 방이 작으니깐, 이사를 가야겠다 싶어서 방을 알아보다가 동소문동 1가의 방 2개로 이사를 간 거죠.

거기서 살다보니깐 애들도 커버려서 방 3개로 온 거죠. 보문동 1칸, 동소문동 2칸, 동선동 3칸.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옮겨왔네요.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에서 결혼식(1993년)



결혼식

※ 아내와는 93년 8월 15일 대학로 오감도에서 소개로 처음 만났다. 결혼식은 같은 해 10월의 마지막 날,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에서 올렸다. 추가로 흥사단 소리새 회원이 춘향가 중에 ‘사랑가’를 불러주었다. 주레이신 건설안전기술협회 회장님도 축가가 특이하고 좋았다고 말씀해주셨다. 신혼여행은 태국 파타야로 갔다.

13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두 번 입학한 대학교

● 대학은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저는 운 좋게 대학교를 추가로 들어갔어요. 계열별로 모집할 때 한양대를 추가로 합격을 했어요. 1학년은 공과 계열이었다가 2학년 때 기계공학과로 배웠어요. 제가 안산에 있는 한양대 다녔거든요. 지금은 에리카(ERICA)캠퍼스라고 하죠. 그때만 해도 한양대학교 안산이 아니라 반월캠퍼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깐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로 바뀐 거죠. 그리고 한참 뒤에 에리카로 바뀐 거죠.¹⁰

10 1979년 3월 반월분교 서울캠퍼스에서 개교, 1980년 반월분교 개교식, 1983년 반월대학에서 반월캠퍼스로 개명, 1986년 반월캠퍼스에서 제2캠퍼스로 개명, 1987년 제2캠퍼스에서 안산캠



한양대학교 입학식(1981년)

지금 아들도 에리카 다녀요. 우리는 특이하게 엄마가 나온 학교를 딸이 다녔고, 아버지가 나온 학교를 똑같이 아들이 다녀요. 제가 경동고등학교 나왔는데, 아들도 경동고등학교, 에리카를 들어간 거예요.

저는 추가로 운 좋게 들어갔지만, 82년까지 2년 다니고 제적당했어요.

공부를 다시 해서 84년도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4년 공부하고 88년도에 졸업했죠.

● 학교를 옮기신 거네요?

맞아요. 공부를 안 해서 새로 시험을 보고 옮겼어요. 한양대는 1학년 때는 계열별 모집이어서 과가 없었어요. 그냥 공과계열로만 모집을 하고, 공학계열, 상경계열, 법학계열 이렇게 모집을 했던 거예요. 1학년 때 교양 과목만 이수하고 2학년 때만 반을 편성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게 기계과, 전기과, 그 다음에 전자과였고,¹¹ 그 다음에 5개 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전 기계과를 선택해서, 2학년 때부터 1년 다녔는데, 성적이 안 좋았어요.

퍼스로 개명, 2009년 12월에 ERICA캠퍼스로 개명.(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연혁)

11 1979년 3월 반월분교 서울캠퍼스에서 개교했고, 기계공학과(500명), 전자공학과(200명), 전기공학과(100명) 3개학과가 설치되었다.

그래서 제적당하고 1년 동안 다시 공부를 했었죠. 동소문로 큰 길가에 보면 큰 건물 2개가 있어요. 삼성디지털프라자 그 건물이 옛날에 브라더미싱 자리였고, 거기에 경기학원이라고 있었는데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첫 미팅

● 대학 다닐 때 미팅은 해보셨어요?

옛날에는 보신각 쪽 관철동에 종로서적이 유명했어요. 그 뒤편에서 첫 미팅을 했어요. 제가 북정마을 동네만 살아서 종로를 참 몰랐어요. 성북초등학교, 삼선중학교, 경동고등학교 이렇게 근처에서만 학교생활을 하다보니깐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 대학교는 또 안산으로 갔으니 종로를 갈 일이 없잖아요. 종로를 몰라서 친구랑 같이 갔



한양대시절(1982.7),
두 번째 줄 중앙이 구술자

었어요.

과 미팅이었는데, 열 명이면 열 명 양쪽이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파트너 선택 방법은 남자가 물건 하나씩 내놓으면 여자가 집어가지고 자기 물건 가져가면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

리고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미팅 자체가 그런 식이었죠.

건대사건에 대해서¹²

- **대학생활 하실 때 학생운동이 활발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한양대 반월캠퍼스 79학번은 경우에는 한양대 행당동(서울캠퍼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반월캠퍼스가 안 지어졌는데도 학생들을 그냥 뽑은 거예요. 그리고 80학번부터 안산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81학번인 저는 거기서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79학번, 80학번 2년 선배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행당동에 있는 선배들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81학번은 안산캠퍼스에서만 다녔고, 행당동하고 전혀 접촉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79학번, 80학번 중에 특히 80학번들은 수업을 못 할 정도로 데모가 심했었죠. 안산캠퍼스에서는 데모가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형식적인 일일수도 있지만, 제 느낌으로는 교내에서 조금 했었던 거 같아요.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었고요.

오히려 건국대 84학번으로 입학했을 때는 되게 심했었죠. ‘건대사건’났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경찰들이 교내 건물로 막 몰고 들어온 거는 건대사건이 처음이었을걸요. 그게 제일 큰 사건이었

12 건대사건은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조국 통일의 3대 구호를 내걸고,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66시간 50분 동안 건국대학교에서 전개된 학생 민주화 운동이다. 10·28 건국대학교 사태 혹은 10·28 건국대학교 항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점거농성은 작전명 ‘황소30’이라 명명된 경찰의 입체 진압작전에 의해 강제 해산됐으며, 1,525명이 연행되고 이중 1,288명이 구속됐다. 연행된 학생들에게는 용공좌경 분자라는 죄목이 적용됐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을 거예요. 당시 본관이 난리 났어요. 경찰들이 너무 많이 몰아 친 거죠. 학생들을 학생회관으로 몰았어요.¹³

학생들은 데모를 장기적으로 할 생각은 안하고, 하루 와서 갈 생각했는데, 갇히니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학생회관 서클룸에 들어가 봤더니 편지들을 중간 중간에 막 꽂아 놓은 거예요. 몰래 숨겨 놓은 것도 있고, 책속에 꽂아 놓은 것도 있었고요. 자기 상황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문을 두들기고 먹을 것도 없는데 물도 안주고 그랬나 봐요. 물이라도 주면 좋은데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 허기에 지쳐서 도시락 하나 놓고 몇 명이 먹었다고 거기 기록에 적혀 있어요. 그때가 86년 10월이었어요.

진도(珍島) 조사의 기억

● 대학시절 기억나는 일화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한양대학교 다닐 때 한국 유네스코 학생회인 쿠사(KUSA)라는 서클(circle)에 가입했어요. 서클 지도교수님 중에 한 분이 국문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우리 때는 동아리가 아니라 서클이라는 말을 썼어요. 서클 생활을 많이 하던 때였고, 81년도 82년도만 해도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좀 뒤숭숭했으니까요.

13 당시 경찰 병력에 쫓긴 학생들은 건국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학생회관, 교양학과, 도서관, 본관, 사회과학관 5개 건물에 흩어져서 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서클 지도교수님이 최래옥이라고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님이셨어요. 전래동화, 구전문학 쪽의 전공자세요. 되게 소탈하셨는데 81년, 82년 그분이 우리 서클 지도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당시에 ‘겨레의 숨결을 찾아서’ 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유네스코학생회 쿠사(KUSA) 출신이거든요. 제가 19기예요. 그래서 82년도에 행사를 마련해서 진도를 간 거예요. 진도가 민속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녹음기 들고 진도에 갔어요. 가장 생각나는 게 씻김굿인데 어디에 갔더니, 씻김굿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와 제가 갔죠. 진짜 밤새도록 씻김굿을 녹음을 한 거예요. 당시만 해도 씻김굿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깐 씻김굿을 연극으로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씻김굿이라는 개념도 없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도 씻김굿 조사(1982년), 녹음기를 들고 녹음 중이다.

● 진도 씻김굿은 어떻게 조사하신건가요?

내가 채록한 사람이 진짜 그쪽에 살고 있는 무당이 하는 거였어요. 진도무당은 강림무당이 아니라, 세습무예요. 엄마가 무당이면, 딸이 무당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며느리가 대를 이어서 하거나. 그런 것들을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씻김굿 녹음을 할 때 비오는 날이었는데, 되게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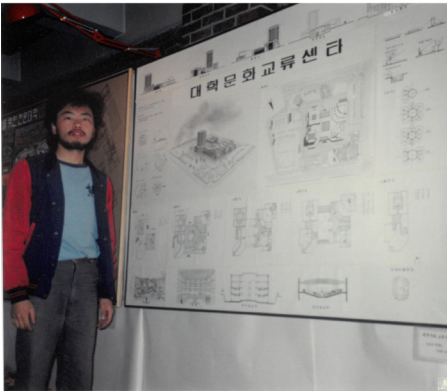
진도 곳곳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 듣고, 녹음, 채록하고 그랬어요. 진도에는 교수님 없이 우리끼리 갔었어요. 방법은 우리가 공부했죠. “녹음 한 거를 절대 토씨 하나 빠지 말고 다 적어야 한다. A4용지에다가 토씨 하나 빠지 말고, 기침을 했으면 ‘기침’ 적고, 뭐 했으면 똑같이 적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과물은 교수님에게 드렸어요. 우리가 중요한 자료제공을 해드린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진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옛날 구전 문학이 어떤 건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희가 진도에 갔었던 것처럼, 요즘에도 전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일종합공사에서 첫 직장생활

● 첫 취업이야기 들려주세요.

86년도에 아시안게임¹⁴이 있었어요. 88년도에 올림픽이 서울에 있었고. 86~88년도까지는 건축과가 굉장히 상한가였어요. 사람이 없어서 못 뽑을 정도로 그때는 건축과가 최고였어요. 85~86년도 이때 졸업한 사람들은 가고 싶은 곳을 골라서 갔어요. 87년도 약간 그랬는데, 88년도 딱 되니깐 취업할 데가 없었어요.

올림픽이라는 큰 국가행사를 마무리하니깐 그때부터는 건설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도 다 구조조정을 하는 때였어요. 졸업할 때 보니 기존에 사람 뽑았던 건설회사도 IMF때 해고하듯이 직원들을 다 내보내던 상태였어요. 제가 88년도 2월에 졸업하니 취직할 데가 거의 없었어요.



건국대 건축과 졸업 작품
(1987.5)



건국대 졸업식, 부모님과 함께
(1988년)

14 1986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The 10th Asian Games).

그러다가 88년도에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 졸업해서 취업도 못하고, 백수로 있으니 가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어떻게라도 어느 회사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문 하단에 바둑판 같이 구인광고가 있는 곳에서 ‘영일종합공사’라는 곳의 구인정보를 얻었어요.

서대문이었는데, 가서 이력서내고 왔더니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깐 회장님, 사장님, 과장님, 회계 이렇게 4명이 근무하는데 저를 뽑은 거예요. 저는 이대리가 되었어요. 당시에는 할 것도 없었어요. 과장님이 실무 책임담당자이고, 회장님은 경찰 출신이셨어요. ‘경우회’ 출신이래서 하얀 옷 입으시고, 하얀 모자 쓰시고 백구두 신고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방이 작게 하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한 곳에 함께 있었던 그곳이 제 첫 직장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조금 열악한 환경의 회사를 취직해서 다닌 거죠.

제일 기억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퇴근시간 끝나고 사장님과 과 서울 시청에 캐비닛 도색하러 간 일이에요. 원래는 과장님과 가야 하는 곳이었는데 출장을 가셔서 사장님이랑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색약이셔서 페인트 색을 잘 구분 못하시는 바람에 제가 색을 맞춰서 밤새 칠했어요. 또 하나는 과장님과 롯데삼강에 빵빠레라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공장 벽에 개구멍 하나 뚫은 일이에요. 빵빠레를 실컷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무한 날들이 좀 지난 이후에 과장님이 “우리 여기 겨울에 일거리도 없고, 다른 회사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그러셔서 전 알겠다고 했어요.

신연희종합건축사사무소

● 그 뒤로 어디 다니셨나요?

건축 쪽으로 갈만한 회사가 있나 싶어서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고 다녔어요. 틈만 나면 이력서를 넣고 다니는 게 일이었죠. 여의도에 ‘신연희종합건축사사무소’가 신문에 구인 광고가 났어요. 원래 연희건축이 유명한데, 거기서 분리되어 시작한 거예요.

‘똑똑’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있고, 사장님 방이 있더라고요. 이력서 내려 왔다고 하니 인사담당자가 “경력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신입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력서를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력사원을 뽑으니 신입사원 필요 없다는 거였죠.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지 말고 받으세요.” 하고 얼른 주고 도망치듯 왔어요.

영일종합공사를 관둔 후 어느 날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여기 신연희건축사무실인데 바로 오셔서 일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내일이라도 가죠!”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갔어요. 운 좋게 바로 취직이 됐어요. 저를 왜 뽑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장님이 원래는 경력사원만 이력서 받았는데, 제가 틱! 던져주고 간 이력서를 보니 본적이 종로구 예지동이라는 걸 보고 그냥 뽑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실장님 본적이 종로구 예지동이었어요. 그런 인연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이력서에 본적(本籍)있고 현주소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나서 채택이 된 거예요. 전 전

혀 몰랐던 거죠.

IMF와 두산건설 명예퇴직

● 건축사 사무소는 몇 년 계셨던 거예요?

건축사 사무소도 지나니깐 일거리가 없어서 실장님이 다른 곳 알아보라고 미리 이야기 해주셨어요. 또 이력서 넣을 곳이 없었지만, 이력서를 넣고 다녀야 되니깐 넣었죠.

제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신연희건축사 사무실 끝나고 바로 또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건설안전기술 협회에 취직을 해서 한 5년을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건설 안전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제가 초창기 멤버였고 우리 세대들이 들어가면서 많이 활성화되었죠. 건물 안전을 주 업무로 전국 현장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자가용을 가지고 다녔는데, 업무가 끝나면 몇 명이 자주 놀러 다니기도 하고, 등산도 다녔어요. 직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재미있게 다녔던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안전 협회는 사단법인이었었는데, 기술자들이 운영하는 단체라 발전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두산건설로 옮기면서 기술개발부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재직 당시
(1990년)



북한산 등산
(1992년)

● IMF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두산건설이 아파트사업 많이 할 때예요. 경력사원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뽑았어요. 저는 IMF 다음해인 98년도에 회사를 나왔어요. 그 당시 해고 방법이 회사조직이 피라미드 모양인데, 대각선으로 30%를 잘라요. 사선으로 30%줄이고 다음해에 또 30%를 줄여요. 첫 번째는 통과했는데, 2차 구조 조정 때 딱 걸린 거예요. 그때 나왔죠.

● 명예퇴직 이후로는 어떻게 상황을 돌파하셨나요?

당시만 해도 벤처붐이 불었어요. 벤처붐이 불어도 할 게 있어야죠. 당시엔 교육을 많이 해줬는데, 실업자 교육을 다니게 되었어요. 강사가 “40대는 손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손을 드니깐, “여기 계신 40대

는 취직 못합니다. 나이도 그렇고, 들어가도 금방 나오니깐, 무조건 창업하세요.” 하면서 창업을 권유하더라고요.

교육 받는 장소를 가려면 강남고속버스 상가를 지나야하는데, ‘상가입주자 모집’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어느 날 궁금해서 가봤더니 원래 있던 꽃 시장이 3층으로 이사를 가고, 지하에 액세서리 상가를 만들 계획이라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던 거였더라고요. 창업 설명회에서 액세서리를 처음 접하고,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덩석 계약을 하고 장사를 시작했죠.

매직후프 총판

● 퇴직 이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친구가 이영자 씨가 그 당시 광고 모델이었던 매직후프(magic hoop)¹⁵라는 홀라후프 총판을 하고 있었는데, 몇 개 가지고 와서 액세서리 가게에서 팔아보니 판매가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그럼 네가 그 쪽 지역 총판을 해봐” 해서 친구가 영등포와 중구 총판을 하고, 저는 서초, 동작, 관악 총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영자 씨가 매직후프로 운동을 해서 지방을 뺀 게 아니라, 지방 흡입도 같이 했다고¹⁶ 하는 바람에 매출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15 1999년 ‘이영자 6개월 단발 1억 원 받고 홀라후프 CF찍어’라는 기사가 확인된다.(스포츠조선, 1999.11.25.)

16 개그우먼 이영자 비만수술 폭로 의사에 7200만원 배상판결(MBC뉴스, 2003.4.23.)

매직후프 하나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문방구, 운동용품점에 여러 가지를 납품했어요. 줄넘기도 하고, 잡화도 하는 중개도매상을 한 10년 했어요.

그 당시엔 창신동은 문구 쪽이었고, 체육용품은 무조건 동대문운동장 가서 구매하는 때였기 때문에 동대문운동장 일대가 엄청난 운동용품 판매점들이 많았어요.

● 총판사업은 어떠셨나요, 경제적으로도 말씀해주세요.

매직후프는 렌토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드는 다른 사장님이 있었어요. 총판 계약은 가맹비가 한 구에 칠백 만원을 줘야 했어요.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가 비어 있어서, 제가 3군데를 계약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매직후프 장사하면서 문방구 영업도 하게 되면서 문방구 사장님들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납품하다 보니 잡다하게 해본 게 많아요.

장사가 처음에 한 2~3년만 잘되었어요. 매직후프 팔 때랑 키보드가 제일 나았던 것 같네요. 매직후프가 안 되기 시작할 때 키보드가 나오면서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키보드 사고가 많이 나면서 또 매출이 줄기 시작했죠. 장사가 잘된 게 2~3년이에요. 그리고 10년 중에 3년을 빼 나머지는 장사가 잘 안되었어요. 강남 쪽을 맡아서 했는데, 문방구마다 다니면서 줄넘기, 아령, 훌라후프, 실내화 위주로 납품을 했었어요. 장사가 잘되지지는 않았고, 그냥 한거죠.

종류가 많아지고, 재고도 많아지니깐, 창고를 만들어서 재고를 넣

어렸었어요. 나중에 창고에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니깐, 팔아보자 해서 가게를 얻게 되었어요. 동소문동에 살 때 삼선중학교 밑쪽 조그마한 가게였는데, 거기서 운동용품 가게를 했어요. 실내화도 같이 팔고, 가게 뒤를 반 잘라서 재고품도 넣고. 뒷길이라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아서 장사가 잘되진 않았지만 생활비 정도는 나왔어요. 그렇게 3년 장사했네요.

가게를 접고 거기 있던 물건들은 더 싼 창고를 얻어서 옮겨놓았어요. 그 때 카드 돌려막기를 해서 카드빚이 좀 많았어요. 물건 매입 할 때 카드로도 사고, 현금으로도 주고 물건을 사왔었는데, 문방구에는 외상으로 물건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깐 다음번에 가서 지난번 외상값을 잘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외상값만 많이 쌓이고, 카드빚이 쌓였어요. 가게 앉아서 장사하는 걸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미니오락기로 돈을 벌다

미니오락기¹⁷도 해봤어요. 초등학교 문방구 앞에 가면 애들 앉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동작구 어느 거래처 문구점에 갔더니, 이 문구점은 게임기가 없었어요. 옆 가게 게임기 거래처에 게임기 좀 갖다 달라고 할 수 없으니, 나보고 “게임기를 좀 해줄 수 있냐?”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볼게요.” 하고 돌아다니면서 게임기 제조업체

17 따로 정식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문방구 오락기’, ‘문구점 게임기’, ‘문구점 오락기’, 거기에 뉴스 기사 등에는 ‘가게 밖 오락기’, ‘가게 밖 게임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문구점, 슈퍼마켓, 분식점 등 아이들이 자주 가는 상점 앞에 설치해서 돈을 넣고 작동하게 만든 작은 게임기이다. 1980-90년대를 대표하는 추억의 물건 중 하나이다.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그 문방구에 게임기 2대를 해줬어요.

그리고 매직후프 강남 총판하는 분이 영업을 잘 안하셔서, 강남 총판도 제가 하기로 했어요. 돌아다니다가 압구정동에 갔는데, 거기 젊은 사장이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어요. 그 슈퍼마켓 앞에 신발 가게가 있어서 학생들 실내화를 납품하러 갔어요. 실내화뿐만 아니라 전화카드도 했어요. 종류도 품목도 엄청 다양하게 했었죠. 문방구 사장이 필요한 거는 다 해다 줬어요.

하루는 슈퍼마켓에 가서 “제가 오락기를 취급 하는데, 혹시 오락기 놓을 생각 없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눈이 동그레가지고 바로 놓아 달라고 해서 놓게 되었는데, 그 당시 압구정동에는 그런 오락기가 없었어요. 나보고 빨리 갖다 달라고 해서 두 대를 놔주고, 목욕탕 의자도 갖다 줬어요.

근데 놔 준지 며칠이 안 되었는데 슈퍼마켓에서 게임기가 고장이 났다고 빨리 와보시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가보니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이니깐 잘 몰라서 당혹스러웠지만, 돈 통을 딱 여니 돈이 끼여서 작동이 멈췄던 거였어요. 애들이 계속해서 돈을 넣고 했던지. 돈 박스가 안쪽 아래쪽에 조그만 하게 있는데, 열쇠도 있고 넣다 빼다 하는 거예요. 돈을 애들이 엄청나게 넣으니깐 애들이 흔들어서 계속 넣었는데도, 마지막에 돈 넣은 애는 가득차서 작동이 되지 않아서 고장 나서 망가 진거예요.

게임기로 돈을 얼마나 벌까 했는데 옛날에 동전을 가로 5칸, 세로 10칸 총 50칸에 넣어서 동전을 쉽게 계산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흔들면 딱 50개가 채워지는 건데, 오락기에서 나온 동전을 그 기계로

세는데 엄청 오래 걸릴 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후엔 수동으로 세는 기구로 전자저울을 구입해서 동전을 켜어요.

● 오락기에서 나온 돈은 문구점 사장님 돈이 아닌가요?

그걸 반까이[반으로 나눔] 하는 걸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임대를 해주는 방식인거죠. 제가 사다주고 AS 해주면, 그 문구점 사장은 전기 켜고 운영 하는 거예요. 계약을 5대5, 6대4, 7대3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건데, 아마 5대5로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엔 처음엔 6대4로 하다가 수익이 많이 나오니깐 나중에 5대5로 했어요. 동전 계산을 하다 보니 저울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그게 한통에 이십 몇 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 게임기로 돈을 버신 게 대략 몇 년도이었나요?

2000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압구정 슈퍼마켓 앞 오락기로 돈을 벌었죠. 그래서 오락기를 많이 늘렸어요. 어차피 거래처는 문방구들이었어요. 옛날에는 학교 앞에 문방구가 최소 2개는 있었어요. 근데 한 가게에 오락기를 넣으면 반대쪽 가게에는 못 넣어요. 그것도 경쟁이라서. 이쪽 문구점에 넣는데, 또 오락기를 저쪽에 이 사람이 넣는다? 그럼 이사람 빼라고 하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상도덕(商道德)상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한 쪽 가게는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가서 제가 이야기해요. “사장님 제가 오락기 넣을까요?” 그러면 “어이구

좋아.” 그럼 갔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압구정동에서 나온 수입으로 오락기를 늘렸던 거예요.

오락기를 몇 년 했었는데, 갑자기 TV에서 학교 앞 오락기를 단속하고, 점차 사양사업이 되면서 차차 없어지고, 또 경찰과 교육청에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빠칭코¹⁸ 라는 새로운 오락기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할 수 있는 약간 도박성 있는 것 같은 오락기죠. 뒤판에 세팅을 해서 승률을 조작할 수 있어요.

이래저래 그런 거 하면서 세월이 갔죠. 문구점과 체육사에 납품하는 일을 10년 했네요.

사장님들과 무슨 얘기를 할까

스타스포츠(Starsports)¹⁹나 낫소(Nassau)²⁰ 이런 브랜드의 스포츠 용품도 취급하고 있었어요. 낫소는 테니스공이 유명하고, 스타도 테니스공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스타가 더 유명해졌죠. 당시 낫소는 테니스공이랑 라켓 쪽만 유명했었고. 스타는 종합이었던 거예요. 스타를 취급했기 때문에 저도 한동안 농구공, 축구공 등 운동용품들을 다 취급했어요.

저는 도매 영업 사업자로 등록되어 물건을 총판가로 납품 받았어

18 파친코[パチンコ]는 일본의 국민 도박 기계를 뜻한다.

19 1965년에 설립된 한국 스포츠브랜드이다.(starsports.co.kr/)

20 1971년에 설립된 한국 스포츠브랜드이다.(nassau.co.kr/)

요. 아무나 물건 주는 게 아니에요. 코드 받아 가지고 문구점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총판 금액으로 제가 받아오죠.

옛날에는 준비물을 거의 다 문구점에서 샀어요. 제가 처음에 영업할 때는 문구점 사장님들 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 겁이 나서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도 계속 영업을 하다보면 그 분들의 생리를 알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알게 된 건, 거래처 사장님들이 되게 따분해해요. 애들이 이것저것 구매하고 학교로 등교하고 나면 한동안 또 점심때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점심 때 애들이 잠깐 나왔다가 하교할 때가 제일 바쁘고 그 외 시간에는 무료한 거예요. 그러다보니 사람들 와서 얘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친분 관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들이 돈 번 얘기를 해줄 때였어요. 사람들 보면 자기 돈 번 얘기 다 해주는 사람 있어요? 안 하잖아요. 내가 이거 해서 돈 벌어서 집도 샀다는 이야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는 가족 얘기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친분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주 방문하다 보면 문구점 사장 아들, 딸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알게 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친해지고 그랬던 거죠.

두 번째 관문으로는 도매로 물건도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매입하러 갔을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물건을 많이 팔지는 못 한다. 혼자이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연을 맺으면 끝까지 잘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물건을 받아와서 판매했어

요. 자기 물건 팔아주겠다는데, 안된다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제 경험으로는 무조건 찾아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 공장이면 공장 많이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사든 물건에 스티커로 표시가 돼 있어요. 제가 이 물건이 필요하다 싶으면, 여기 보면 제조사나 판매자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거기 전화 걸어서 어디인지 위치 확인해서 찾아가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제가 구하려는 물건과 또 다른 물건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래를 틀 수 있잖아요. 예컨대 인사동 다니다 보니까 예쁜 카드도 있고 그런데, 그 카드를 영업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영업해 주면 환영인거죠. 하여튼 이래저래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한 10년 동안 프레지오 롱6밴이라는 긴 봉고차²¹를 끌고 다니면서 열심히 했죠. 그 후에 아내 친구들하고 치킨 집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21 봉고는 기아가 일본 마쓰다의 기술 제휴로 1980년에 최초로 출시한 1톤 트럭에서 시작된 소형 트럭, 승합차를 말한다. 1980년대 당시 봉고가 출시되었을 때 엄청난 양의 차가 팔려나갔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봉고와 같은 원박스카를 봉고차라고 부르게 되었다.

14

인생 후반기



치킨가게 운영

그때 신용이 2006년도에 이천이백만원이었으니깐 꽤 많았죠. 카드 3개 가지고 돌려막고 그랬었어요. 카드 한도 총액이 오백만 원인데, 여기서 빼고 막고, 저기서 빼고 막고 하다보니깐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어요. 2009년도에 아내 친구가 혼자서는 어려우니 자기가 돈을 대고 치킨 가게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에서 치킨 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전농동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생각만큼 잘되지 않았어요. 수익 창출되면 n분의 1해서 수입을 주기로 했는데 얼마 안 되더라고요. 8개월 정도 하다보니 생각보다 수익이 안 되고, 알바생 인건비에 전단지 홍보비, 재료값 등 지출이 너무 많더라고요. 겉으로는 버는 것 같은

데 계산해보면 수익이 별로 안 남으니 친구가 업종을 바꿔보자고 했어요. 그 친구가 닭발을 좋아해서, 닭발 가게를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닭발 체인점을 모집하는 인천 본점에 가서 상담하고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체인 사업 한지가 얼마 안 돼서 가맹비도 저렴하고 재료비 위주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접고 닭발로 업종 변경을 했어요.

닭발가게 시작

● 닭발 가게는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건가요? 과정도 궁금합니다.

2010년부터요. 그 전 치킨 가게를 2009년 9월에 시작해서 2010년 봄에 닭발 가게로 업종을 바꿨어요. 닭발 가게가 치킨 가게보다 일도 수월하고 마진율 자체가 달라서 훨씬 좋았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동업을 못하게 되었어요. 아예 저희한테 인수하라고 했는데,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닭발이라는 업종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서 너무 아까웠어요. 두 달 밖에 안했는데 실업자가 되어서 갑자기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우리가 돈이 없는 상황인데 닭발이라는 업종을 계속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해서, 한양대학교 KUSA 친구들이 십시일반 천만 원을 모아서 줬어요. 그 돈으로 돈암시장에 가게를 얻어 테

이불 2개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평수가 작으니깐 배달을 위주로 했어요. 그 때부터 11년째 하고 있네요.

● 그때부터 장사가 좀 되신 건가요?

빛 있던 거 갸았쥼. 대박쳐서 큰 부자가 된 거 아니어도, 소소하게 식구들 먹고 살 정도는 됐어요.

소스만 체인점 본점에서 받고, 정육이나 닭발, 고기 등 재료들은 마장동이나 중앙시장에 가서 사와요. 체인점이긴 하나, 직접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항상 매출이 꾸준하고 상승세에 있어서 바쁘게 살았는데, 최근3년 전부터 장사가 안 되다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내리막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특히나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배달 업종에 뛰어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배달업종이 포화상태예요. 닭발 하는 가게도 많아졌고, 10여 년 전에 시작할 때 이 동네에 10개도 안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개 가까이 배달하는 업종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옛날만큼 장사가 그렇게 안 되네요.

처음부터 매장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배달을 주로 하려고 지하로 왔으니깐요.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지만, 월세가 저렴한 가게거든요.

친구들의 도움

● 좋은 친구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모임이 ‘성초27’ 이라고 지금도 모임이 이어지고 계속 연락도 하고 있어요. 2020년 6월 여름에 가게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부 불탄 적이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동창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새롭게 인테리어도 싹 하고 단장해서 다시 오픈했어요.

한양대학교도 지금까지 모임도 해요. KUSA19기 동아리 모임이 40년이 되었네요. 제가 기장을 맡고 있어요. 한국 유네스코 학생회(KUSA)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옛날엔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다녔던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엔 모임보다는 경조사 때 만남이 더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귀농을 생각하다: 버섯종균기능사

저는 지금 일하면서 좋은 게 가게를 3시 30분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가게가 늦게 오픈을 하니 오픈 전에 갔다 올 수 있거든요.

요즘은 옷 만들기과 버섯에 관해서 배우고 있어요. 버섯 종균 기능사라는 게 있어요. 버섯은 누구나 키울 수 있어요. 옛날처럼 나무에 구멍 뚫고 종균을 접종해서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병에다가 배지를 만들어서 버섯을 키워요. 그런 키트가 있어요.

이 버섯은 아무나 키울 수 있지만, 버섯 종균을 제조하고 유통시키려면 반드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버섯종균기능사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처음엔 귀농, 귀촌에 초점을 맞추고 배움을 시작을 했는데 귀촌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버섯 키우는 거래요. 비닐하우스는 한 동이 100평정도 되는데, 시골에서 한 동이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나온대요. 다른 일에 비해서 귀촌해서 힘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버섯 농사가 좋은 것 같아서 권장 드리고 싶네요.

● 버섯종균기능사는 어떤 시험인가요?

국가 자격증이에요. 큐넷(q-net)이라는 국가 자격증에 대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요즘 트렌드인 귀농, 귀촌을 생각하다가 처음에 교육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휴일이 화요일이라 찾아보다가, 벼룩신문에 나와 있는 한국토종약초학교에서 처음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성북구청에서 하는 ‘허준약초학교’가 눈에 띄었어요. 그렇게 몇 년 전에 허준약초학교를 다니며 약초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차, 건강 쪽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시골에 가면은 일단 산이 있으니까, 약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했어요. 막연하게 귀촌을 생각하며 시골에 가면 뭐 할까했죠. 약초도 키우지만 집도 지어야겠고, 그러면 목공도 좀 배워야 되겠다하며 목공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약초 학교에서 만난 분이 영등포 50플러스센터에서 차 수업하는 데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업에서 또 다른 분이 소개해주셔서 8체질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러 간 곳이 노원 50플러스센터예요. 그래서 저는 50플러스를 많이 이용해요.

새로운 배움과 활동: 50플러스

● 50플러스가 어떤 곳입니까?

먼저 50플러스라는 게 뭐냐면, 50대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캠퍼스가 4개가 있고요. 구마다 앞으로 센터가 다 생기는데 종로구 도심권이 있고 서대문도 있고, 최근 1년 전에 보문도 생겼고, 노원에도 센터가 있어요. 창동에는 캠퍼스가 있고요.

은퇴하신 분들도 재교육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배워서 창업도 할 수 있고, 사회공헌이나 봉사, 취미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의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가르칠 능력이 되면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또 50플러스는 커뮤니티를 조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화센터나 어디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6주 교육이면 6주 후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끝이잖아요. 50플러스는 그 사람들끼리 다시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 커뮤니티의 주체는 누군가요?

커뮤니티의 주체는 교육 받은 사람들이예요. 배움의 모임을 계속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끼리 5명 이상 조직을 해요. 조건만 맞추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장려 하죠.

구청에서 하는 교육들이 많아요. 저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수업들이 있나 자주 확인 해봐요. 지금은 성북동에서 하는 꽃차 수업과 종이 감기 공예 수업을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성북동이 원래 된장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전터하고 마권이 있었고 두 가지 권역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걸 좀 복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성북동 북정마을에는 된장 담글 때 북적북적해서 북정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그리고 된장을 담으면서 새로운 세대들과 기존 세대들이 융합되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장류 사업으로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종로구 창신동에 노인복지관 있어요. 옥상에 항아리를 짝 해가지고 장류를 만들고, 카페도 있고, 또 거기서 어르신들이 판매도 해요. 체험도 되고, 수익 창출도 되는 거예요. 성북동도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 하는 된장 만들기를 참여한 적이 있어요. 안암동 주민

센터에서 할 때 저도 참여했었어요. 고추장, 된장, 간장 이렇게 받아
왔죠.

또 성북초등학교 운동장에 마전터에서 빨래 줄을 길게 늘어뜨려
염색하는 걸 재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
들한테 알릴 수도 있고, 염색한 천 같은 것으로 성북역사문화센터에
서 주관하여 체험학습을 만들어도 되고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어차
피 거기에 선잠박물관도 있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력 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더라고요.



아내와 방콕 신혼여행 (1993년)



가족사진 (2001년)

50플러스 세대들에게

저는 일을 하면서도 50플러스센터를 통해 이것저것 많이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요즘에는 떡 제조기능사, 차 모임, 종이 감기 공예, 집콕 놀이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성북구에서 진행 하는 프로그램만 해도 할 게 무궁무진해요. 50플러스 포털을 잘 이용하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해요.

특히나 제 또래인 50-60대 남자들은 사회생활 외에는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활동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활성화 시키면, 제2 인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하루라도 젊고 움직일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성북에 대한 생각들

● 성북에 대해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게 있으신지요?

요즘엔 전체적으로 한옥이 많이 없어지는 게 아쉬워요. 특히, 이 주변인 보문동에 한옥이 많았었는데 근래에 많이 없어지는 게 아쉬워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는 자치구 중에 하나가 성북구예요. 최근 종로구에 가보고 재개발을 어떻게 많이 해냈는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른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성북구는 그렇게 큰 재개발 사업을 한 것도 아니었고,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북구에서 제일 큰 재개발 사업은 여기 한신한진아파트²²일거예요. 그것은 주거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성북구가 강북구보다 좀 늦게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게, 강북구 수유리만 해도 수유역 중심으로 해서 오피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도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업 시설이 같이 움직이고 해야 이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좀 생기고 발전이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는 거죠. 성신여대 전철역만 해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 이유가 있을까요?

성신여대역 쪽이 국한이 되어있고, 옷가게 아니면 네일샵 등 상권이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녀공학이었으면 아마 상권이 홍대 같은 스타일일 수도 있겠네요. 홍대는 상권이 밀려 들어와 넓어지는데, 성북구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성신여대 로데오를 보면, 지구별 단위 계획을 장기적으로 넓게 해서 큰 건물들을 랜드마크 같이 해줬으면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22 1990년 4월에 동소문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이후 재개발이 진행되어 1998년에 아파트가 완공되었다.

한성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나마 나폴레옹제과, 큰 건물 두, 세 개 이렇게 생긴 거 이외에는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은 잠시 불편할 수 있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 **성북동에 3대가 살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아오신 분들이 있던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던 곳을 옮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직장이 멀리 바뀌었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냥 살고 있는 데서 계속 사는 게 보통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속 거주하시다보니, 자식들은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성북동에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성북초등학교, 삼선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제 친구들은 성북초등학교 졸업하면 90%가 홍익중학교(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갔어요. 저는 특이한 케이스로 삼선중학교 갔어요. 삼선중학교에서 70-80%가 대일고등학교를 갔는데, 저는 경동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저는 두 번을 그렇게 엇갈려 가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이 없어요.

● **북정마을에 사셨던 주민으로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보다, 제 어린 시절 그 때의 북정마을의 그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북정마을을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서울에 있는 시골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내도 종종 같은 서울에서 살았는데 신기하게 당신은 시골 사람 같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북정마을하면 대표하는 게 심우장인데, 심우장만 보고 북정마을을 다 본 거 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전체적으로 곳곳에 좋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 **시골마을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마을 어르신들과도 더 친하고 그 러셨나요?**

그 당시에는 60세이면 오래 산 편이여서, 신흥사(흥천사의 옛이름)에서 환갑잔치도 크게 하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엔 마을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을을 위해서 농악 같은 것도 하였고, 그렇게 마을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보기 좋았던 건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없는 게 아쉽네요. 그 동네 자체가 재개발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의 다 외지 사람들이 거기 집들을 많이 샀더라고요. 이제 철거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들 외지로 나가게 되겠죠. 사실 북정마을은 서울에 몇 안 되는 달동네인지라, 이런 곳이 보존되어서 6~70년대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명소로 남길 바라고 있어요.

[illegible]

에필로그 Epilogue

저는 구술생애사 주민기록단 교육을 받으며, 성북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상호관계를 발견하며, 성북의 주민으로서 제 삶의 소중함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제연 교수님께서 구술생애사를 통하여 성북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활용해야 할 자료와 정제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변화와 지속되는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북문화원의 유능하신 김지훈, 장지희 선생님께서 주민기록단을 위해 준비해 주시고 경청해주시며, 많은 수고로 완성되어가는 과정 중 참여의 기회를 주시고, 배우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도록 성북문화원과 함께하신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며, 구술자 이승규 선생님께, 성북구청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기록단 참여자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 공유했다는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 박미현

성북구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면서 성북구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네 주민 분들과 함께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발굴해나가는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술생애사 기록은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지도해주신 교수님과 성북문화원 담당자 분들, 주민기록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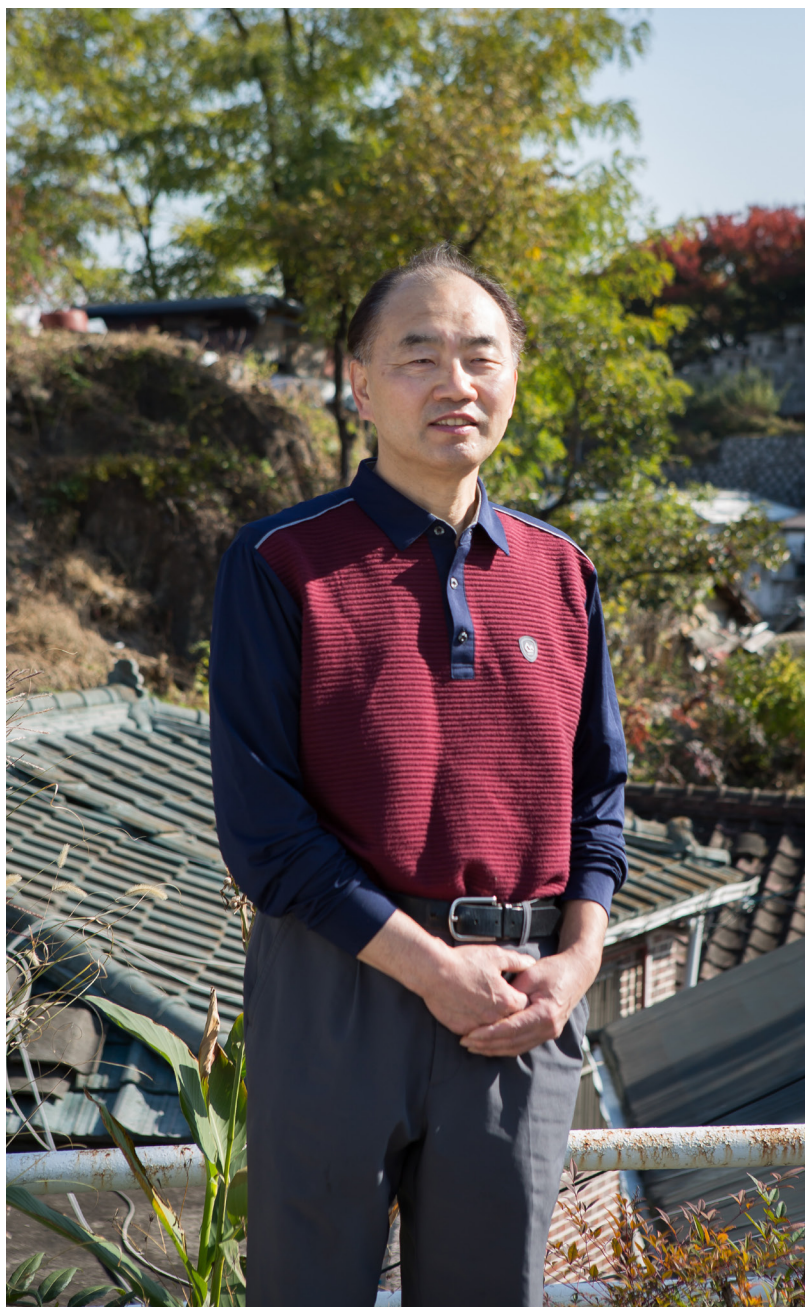
- 이소희

몇 해 전 영상을 찍기 위해 북정마을에 간 적이 있다. 이번 주민기록 활동으로 또 다시 북정마을을 만나게 되어 한편으론 반갑기도 했다. 북정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이승규 님의 생애사 기록을 통해 북정마을을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근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구술 작업을 어떻게 하면 차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 정봉운

자영업자 이승규 선생님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지만, 제가 방문할 때 마다 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북정마을 이야기, IMF 이후의 어려웠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납니다. 어쩌면 이승규 선생님은 포기하거나, 지칠 수도 있었던 삶의 지점에서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과 원만한 대인관계로 어려움을 돌파해오셨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과 노력,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해온 이승규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 김지훈



이미지 출처

- 14쪽: 남윤중 촬영
- 18쪽: 남윤중 촬영
- 19쪽: 이승규 제공
- 21쪽: 이승규 제공
- 23쪽: 이승규 제공
- 25쪽: 이승규 제공
- 27쪽: 이승규 제공(좌)
- 27쪽: 이승규 제공(우)
- 30쪽: 이승규 제공(좌)
- 30쪽: 이승규 제공(우)
- 34쪽: 남윤중 촬영
- 36쪽: 이승규 제공
- 37쪽: 이승규 제공
- 38쪽: 성북문화원(좌)
- 38쪽: 성북문화원(우)
- 40쪽: 성북문화원
- 42쪽: 성북문화원(좌)
- 42쪽: 성북문화원(우)
- 42쪽: 성북문화원(하)
- 43쪽: 이승규 제공(좌)

43쪽: 이승규 제공(중)
43쪽: 이승규 제공(우)
47쪽: 이승규 제공(좌)
47쪽: 이승규 제공(우)
50쪽: 남윤중 촬영
52쪽: 이승규 제공
53쪽: 이승규 제공
56쪽: 이승규 제공
58쪽: 이승규 제공(좌)
58쪽: 이승규 제공(우)
62쪽: 이승규 제공(좌)
62쪽: 이승규 제공(우)
72쪽: 남윤중 촬영
80쪽: 이승규 제공(좌)
80쪽: 이승규 제공(우)
89쪽: 남윤중 촬영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의 네 번째 주인공은

성북구 토박이 이승규 구술자입니다.

여러 번 이루어진 구술자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책의 구성은 1부 어린 시절, 2부 북정마을,

3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4부 인생 후반기로

하여 시간 순으로 주제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이 책은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공기를 가진

북정마을의 이야기이자, 북정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승규 님의 자서전입니다.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구술자와 오랜 시간 구술내용에 대한 확인과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대한

기록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SBN 979-11-954544-6-4

비매품